작은 거장

Little Maestro

"『현대건축사 111인』이라는 책에 따르면, '라파엘 모네오'라는 건축사는 그 건축사 특유의 건축 재료나 특징이 없다는 이유로 비평가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붉은 벽돌의 '김수근'이나, 단순함의 '르 꼬르뷔지에'처럼 건축사들이 그 나름의 상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번 강의를 듣게 되었다.

특강을 진행하신 ○○○ 교수님의 작품들은 많이 본 건축물들이었지만, 한 건축사가 설계했다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달라보였다. 그 이유는 건물이 그 목적과 주변 사정에 맞게끔 재료와 형태를 달리 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좁은 삼각형 땅에 세워진 건물은 창과 색을 통해 공간에 확장감을 주었으며, 또 삼각형 형태의 외부를 통해 삼각형 땅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 공간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맥락을 잘 따져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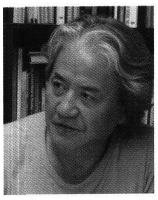
사실은 나도 건축사가 된다면 나만의 특징을 갖고 싶었으나, 설명을 듣고 나니 자신을 알리기 위한 고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물은 나를 알리기 전에 사람을 위하는 것이므로, 그곳이 사람들에겐 어떤 곳인가, 그 어떤 곳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좀 더 생각해보니, 나는 궁금했던 두 번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문제란, '현대 한국건축에 옛 전통을 가미해야 하는가?'였는데, 넣으려 하니 편견인 듯하고, 빼자 하니 안타까웠다. 나는 비로소 이 역시 때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물관은 절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지역 조사로 탄생했다. 동향인 이유도 사찰 방향이 그러하기 때문이고, 불상의 채광반식도 사찰을 약간 변형시킨 것이다. 공간을 제대로 읽어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건축사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글은 1년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읽게 된 어느 16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건축답사 후기 전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이글을 읽고 놀라움에 답글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학생의 어머니는 격려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었다. 인문, 사회과학적 소양이 쌓이기 쉽지 않은 어린 학생이 보여준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은 내 마음속에서 감동의 갈채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였다.

몇 개월 후, 이와 비슷한 사건을 또 겪게 되는데, '2011 공연장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를 맡았을 때의 일이다. 수많은 출품작 중 우연히 고등학생 작품이 눈에 띄어 유심히 보게 되었다. 화려한 그래픽이 아닌 연필로 표현한 드로잉이었다. 비록 내용은 미흡했지만 그 용기와 진정성 있는 계획안이 마음에 들어 동료 심사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더니, 그 말고도 중학생이 제출한 안도 하나 더 있다고 알려주었다. 자연스럽게 동료심사위원들과 나는 그 작품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앞서 말한 고등학생의 작품보다 내용과 표현이 더 알차있었고 계획안의 주제설정과 의도가 분명하였으며 무엇보다 그 작품의 스케치에는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선들의 유연함이 있었다. 모든 심사위원들은 놀라워했으며 애초 선정된 16명의 본선인원에서 1명을 더 추가하여 이 중학생을 최종면접 참가자 명단에 넣기로 했다. 사실 나의 제일 관심사는 과연 이 스케치와 작품이 그 학생 스스로의 솜씨였는지와 어떤 성장배경과 이유로 이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였다. 2차 심사 면접날, 처음 접한 그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계획안에 관한 주장에서도, 그 어떤 부끄럼이나 위축됨이 없었다. 마음속으로 신성의 탄생을 기리며 응원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최종 8명의 수상권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은 특별상이라도 추가 제정해 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주최 측과 상의한 결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수상하는 그날 공식행사가 끝난 후, 이상림 한국건축가협회장이 직접 그 학생에게 행사장 옆 장소에서 별도의 수여식을 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덧붙이자면, 이 두 가지 독립적인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은 나의 기우(?)대로 동일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4차원'이라는 on-line nickname을 쓰는 이 중학생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다. 시상식장 옆 조촐한 장소에서 특별상을 받아준 작은 거장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성관 | Lee, Seong-kwan, KIRA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약력
-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동 대학 대학원
- 콜롬비아대학교 건축대학원
- 미국건축사(AIA 회원)